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대구시민의 관광태도

조진희 · 김수봉 · 전은정

계명대학교 에너지환경계획학과

(2008년 6월 23일 접수; 2008년 11월 18일 수정; 2009년 1월 15일 채택)

### Tourism Attitude of Deagu Citizens toward the Sustainable Ecotourism

Jin-Hee Cho, Soo-Bong Kim and Eun-Jeong Jeon

*Department of Energy & Environmental Plann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Manuscript received 23 June, 2008; revised 18 November, 2008; accepted 15 January, 2009)

#### Abstract

The changes in the worldwide paradigm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started to be applied in the entire industry fields, and they come out as the sustainable tourism in the field of tourism. And the ecotourism has emerged as a practical method to meet the needs of the actual practice and the intellectual system for the sustainable tourism. In the type of tourists based on tourist attitude, 82.3% has the environment-friendly tourist attitude as a potential ecological tourist or an ecological tourist. In addition, there are the potentials of increase in ecological tourists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of ecological tourism. First, the ecological tourists are mostly the well-educated and married professional workers at 40, housewives, and people earning a high income. Next, the potential ecological tourists are mainly the well-educated and married professional workers at 30, workers in the service industry, and middle-class citizens. Lastly, the general tourists are the students at 20 who are single, earn a low income, and has low level of education. This study presents useful data to the tourist busines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ustainable ecological tourism.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tour, Ecotourism tour attitude, Ecotourists, Potential ecotourists, Mass tourists

#### 1. 서 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었고, 성장패러다임에서 생태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관광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관광산업은 경제적 이익과 무공해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양적으로 팽창해왔으나, 수용력의 초과, 무리한 관광개발, 관광객들의 환경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정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었고<sup>1)</sup>,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문제가 관광산업에 다시 악영향으로 돌아 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sup>2)</sup>.

그러나 국내의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이 외국사례를 통한 단순한 시사점 제시나 기존 문헌을 토대로 한 개념정립, 현황과

Corresponding Author : Soo-Bong Kim, Department of Energy & Environmental Plann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Phone: +82-53-580-5254  
E-mail: sbkim@kmu.ac.kr

약, 필요성, 기본방향 제시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의 접근에 머물고 있다<sup>3-6)</sup>.

따라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올바른 정착과 생태관광 정책 수립, 관광기업자의 생태관광지 개발, 운영, 관리,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생태관광객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환경을 고려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생태관광지 방문객들을 유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방문까지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관광객의 특성 파악과 이해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관광객의 관광태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시민들의 관광태도를 조사하고, 친환경적 정도에 따라 관광객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생태관광 태도 요인과 관광객의 차별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향후 생태관광 개발과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으로 유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관광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국제동향에 관한 시기는 관광과 환경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는 단계인 제1기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와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이 새로운 개발과 보전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제2기, 그리고 관광분야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도입하여 실천에 옮기는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온전성, 생태적 과정,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명부양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정의하고 있다<sup>7)</sup>.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생활의 질 향상', 관광객에게 '양질의 경험 제공', 지역사회와 관광객을

위한 '양질의 환경 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정의 내리고 있다<sup>8)</sup>.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기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문화의 고유성, 근본적인 생태계 과정, 생물학적 다양성 그리고 환경보전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관광자원이 계획되어 이러한 내용을 관광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sup>9)</sup>, 현 세대에서 관광하고 있는 관광대상이 잘 보전되어 미래 세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및 이에 대한 관리이며, 새로운 것에 대항하여 경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관광대상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즉, 지속가능한 관광은 '자연 파괴적인 관광'에서 '친자연적인 관광'으로, '친자연적인 관광'에서 '자연보호를 연결시키는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경제성장과 환경정책을 통합시킨 개념으로서 관광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보호, 자연보전을 고려한 적절한 개발과 활용 범위 내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는 개발방식으로, 관광활동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 목표를 제시하는 이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생태관광과 생태관광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태관광이란 용어는 1965년 Hetzer가 'Links'라는 잡지에 문화, 교육 그리고 관광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비평하는 글에서 그 대안으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국제관광기구인 ASTA(The 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가 1990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관광환경 회의에서 '생태관광(Ecotourism)'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환경과 조화하는 관광' 즉,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문화를 이용하고 즐기는 것을 생태관광의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sup>11)</sup>. 그리고 1998년 7월 유엔총회에서 유엔이 생태관광의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IYE)로 지정한 이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국제기구, 정부, 민간부문이 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WTO

와 UNEP가 ‘세계 생태관광의 해’ 동안 국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을 준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태관광객이란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광을 하는 관광객<sup>12)</sup>이라 할 수 있는데, 생태관광객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생태관광객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Lindberg<sup>13)</sup>는 생태관광객을 연구나 자연경관 감상 및 야생 동·식물의 관찰과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오염되고 덜 훼손된 자연 지역을 관광하는 관광객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생태관광객 관련 정의를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소규모로 참여자 수를 제한하는 관광객으로, 전문 가이드나 강사와 함께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관광에 참여한 관광객을 생태관광객,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관광지를 방문한 방문자를 생태관광객이라 하였다<sup>3)</sup>.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관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태관광지라 이름 붙여진 관광지를 방문한, 또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생태관광객이라 정의하였다<sup>14,15)</sup>.

### 3. 자료 및 방법

#### 3.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대구시민의 생태관광태도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고, 생태관광태도는 관광객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에 대한 인지와 감정 그리고 행동의지가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였다. 설문문항은 대구시민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생태관광태도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소득 등 6개 항목을 설문문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생태관광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광태도’ 및 ‘생태관광태도’ 관련 연구를 기초로 하여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객들의 지침과 윤리강령 그리고 관광태도척도에서 21개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 3.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으로 하였고, 설문조사기간은 2004년 9월6일부터 1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후에 2004년 9월20일부터 24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각 구/군별로 나누고 연령별, 성별로 비례 할당하여 각 구/군별 표본수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은 20세 이상의 대구시민 1000명으로 하였고, 대구시민 250만 명에 대해 95% 신뢰도 수준에서 표집오차  $\pm 3\%$ 의 적정 표본 수는 900명이므로 본 설문은 대구 시 전체 인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방법은 대인면접법을 사용하여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 3.3. 자료분석

회수한 설문지는 1000부 중에서 응답이 모호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9부를 제외한 991부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고, 설문지의 검토, 편집, 코딩 과정을 거친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와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관광태도점수에 따라 관광객을 분류하고 관광객 집단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관광객 집단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시민을 환경친화적 수준에 따라 생태관광객, 잠재생태관광객, 대중관광객으로 분류하여 관광태도를 알아보고, 차별화된 생태관광객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진정한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4. 결과 및 고찰

#### 4.1. 조사대상자 사회경제적 배경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의 인구, 성별, 연령분포별로 비례 할당하여 표본수를 정하였으며, 실제 분석에 이용된 조사대상자는 Table 3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1.1%와 48.9%이고, 연령은 20대와 30대 26.8%, 40대 25.1%, 그리고 50대 이상 21.2%가 조사에 포함되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64.0%로서 미혼의 36.0% 보다 많았고, 직

**Table 1.** Components of questionnaire

Category	Contents	Number of item	Item No.	Scale
Socio-economy	Gender, age, marital status, academic background, job, income	6	No.1 ~ No.6	Nominal scale
Tourism attitude	Degree of faithfulness to norms Degree of previous learning Degree of validity of expense Degree of obedience to regulations Degree of respect for culture Degree of availability of facilities Degree of protection of species Degree of tolerance toward inconvenience Degree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economic benefits Degree of learning of natural environment Degree of resistance to spending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welfare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Degree of cultural learning Degree of consideration toward pollution Degree of participation in culture Degree of protection toward nature Degree of validity of control Degree of follow-up learning Degree of follow-up reconsideration	21	No.7 ~ No.27	Interval scale
Total number of items		27		

**Table 2.** Components of subjects

Daegu (1000)	20's (244)		30's (263)		40's (249)		50's (244)	
	M	F	M	F	M	F	M	F
Junggu (33)	4	4	5	4	4	4	4	4
Donggu (134)	17	16	18	17	17	16	17	16
Seogu (105)	13	13	14	13	13	13	13	13
Namgu (73)	9	9	10	9	9	9	9	9
Bukgu (176)	22	21	23	23	22	22	22	21
Suseonggu(177)	22	21	24	23	22	22	22	21
Dalseogu(239)	29	29	32	31	30	30	29	29
Dalsunggun(63)	8	7	9	8	8	8	8	7
Total	24	4	35	4	44	4	54	4

M=Male, F=Female

업분포는 전문직 24.9%, 서비스업 22.6%, 주부 22.1%, 학생 21.7%와 기타 8.7% 순으로 구성되었다. 학력분포는 고졸이하가 37.9%이고 62.1%는 대학재학 또는 대학졸업이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소득

분포는 월소득 100만원미만이 8.7%, 100~300만원이 6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0만원 이상도 29.6% 이었다.

**Table 3.** Socio-economy background of subjects

Socio-economy		No.	%	Socio-economy		No.	%
Gender	M	506	51.1	Job	University graduates	404	40.8
	F	485	48.9		Professional	247	24.9
Age	21~30	266	26.8		Students	215	21.7
	31~40	266	26.8		Housewives	219	22.1
	41~50	249	25.1		Services	224	22.6
	Over 50	210	21.2	Others	86	8.7	
Marital status	Single	357	36.0	Income	Under 1 million	86	8.7
	Married	634	64.0		1~3 million	612	61.8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376	37.9		Over 3 million	293	29.6
	Undergraduates	211	21.3	Total	991	100.0	

**4.2. 생태관광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생태관광태도 척도로 사용한 21개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  계수가 0.89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측정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관광태도 척도로 사용한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고유값 (eigen value)과 분산 설명력을 기준으로 5개의 주요 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1은 '환경윤리성', 요인2는 '현지 자연·문화와 조화성'으로, 요인3은 '자연보

**Table 4.** Results of factor analysis about tourism attitude

Item/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Environmental ethics	Harmony of local nature & culture	Conservation of nature	Consideration of local residents	Protection toward species
Item 4. Degree of obedience to regulations	.756	.007	.089	.199	.183
Item 1. Degree of faithfulness to norms	.725	.009	.159	.128	.228
Item 5. Degree of respect for culture	.724	.178	.121	.171	.077
Item 6. Degree of availability of facilities	.685	.225	.069	.108	.052
Item 3. Degree of validity of expense	.607	.230	.147	.100	.127
Item 2. Degree of previous learning	.465	.374	.043	.019	.010
Item13.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welfare	.389	.357	.305	.066	.297
Item14.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053	.768	.008	.044	.052
Item17. Degree of participation in culture	.099	.727	.083	.059	.011
Item21. Degree of follow-up reconsideration	.157	.624	.240	.202	-.158
Item15. Degree of cultural learning	.237	.619	.202	.105	.120
Item16. Degree of consideration toward pollution	.177	.580	-.130	-.013	.462
Item 9. Degree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174	.546	-.058	.527	-.073
Item20. Degree of follow-up learning	.222	.526	.409	.231	-.251
Item19. Degree of validity of control	.102	.136	.802	.096	.163
Item18. Degree of protection toward nature	.241	.096	.740	.069	.185
Item10.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economic benefits	.142	.078	.148	.754	.170
Item 8. Degree of tolerance toward inconvenience	.338	.147	.070	.549	.324
Item11. Degree of learning about natural environment	.379	.425	.133	.446	.001
Item 7. Degree of protection of species	.236	-.128	.132	.268	.661
Item12. Degree of resistance to spending	.183	.055	.271	.070	.649
Eigen value	3.467	3.460	1.789	1.660	1.576
Degree of explanation (%)	16.509	16.478	8.517	7.904	7.504

존성'으로, 요인4는 '현지 주민 이해성'으로 그리고 요인5는 '동·식물 애호성'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주요인분석 결과 대구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태관광태도는 '환경윤리성'과 '현지 자연·문화와 조화성'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형태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태관광 행동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태관광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생태관광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보다 생태관광지와 관련된 환경윤리 및 현지 자연·문화와 조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4.3. 관광태도 차이에 근거한 관광객 분류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를 개발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는데, 일반 관광객 누구나가 태도와 의식의 변화로 생태관광객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관광태도의 친환경적 정도에 따라 생태관광객, 잠재생태관광객, 대중관광객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광객 분류는 관광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저(低), 중(中), 고(高)의 세 집단으로 관광객을 분류<sup>16)</sup>하였다. 관광태도척도의 21개 항목의 응답치의 합산점수가 63점미만의 응답자를 저(低), 63점에서 83점 사이의 응답자를 중(中), 84점 이상의 응답자를 고(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대중관광객, 잠재생태관광객, 생태관광객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991명의 응답자중 17.7%인 176명이 대중관광객, 73.7%인 730명이 잠재생태관광객, 8.6%인 85명이 생태관광객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친환경적인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생태관광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생태관광객이 73.7%로 나타나 앞으로 생태관광을 통해 생태관광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광객태도의 항목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p < 0.01$ 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생태관광객은 5개 범주 21개 문항 전부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21개 문항 중에서 10개 문항은 생태관광객과 대중관광객의 점수 차가 1.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백점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0점 이상의 점수 차를 나타낸다.

그 중에서 '관광 중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 한다', '지출한 관광비 중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 '관광하면서 그곳의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노력 한다'는 점수 차가 1.7점 이상으로서 관광태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 4.4. 관광객 수준별 사회경제적 특성

잠재생태관광객과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교차 분석한 결과, 대중관광객과 잠재생태관광객 그리고 생태관광객은 성별을 제외한 각각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7의 결과와 같이 성별분포에서 세 집단 모두 남, 여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와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고, 남·여 모두 친환경적인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생태관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생태관광객의 남, 여 비율이 비슷하다는 BOO<sup>16)</sup>, 조<sup>17)</sup>, 최<sup>18)</sup>, 이와 조<sup>19)</sup>, 강<sup>20)</sup>, 조<sup>21)</sup>, 조와 이<sup>22)</sup>, 이<sup>23)</sup>, 서<sup>24)</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별분포에서는 생태관광객의 경우, '40대'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잠재생태관광객은 '30대'가 28.9%, 대중관광객은 '20대'의 비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Table 5. Categories of tourist

Tourists		Frequency (person)	Ratio (%)	Average of tourism attitude
Type	Seneral tourists	176	17.7	57.47
	Potential ecotourists	730	73.7	71.21
	Ecotourists	85	8.6	88.62
Total		991	100	

**Table 6.** Score comparison of environmental ethics based on tourists' type

Factor	Item	General tourists(C)	Potential ecotourists(B)	Ecotourists (A)	F	Duncan's G
Environmental ethics	Degree of obedience to regulations	2.94	3.65	4.44	177.130**	C<B<A
	Degree of faithfulness to norms	2.80	3.54	4.26	147.188**	C<B<A
	Degree of respect for culture	2.89	3.60	4.45	178.080**	C<B<A
	Degree of availability of facilities	2.86	3.54	4.33	148.190**	C<B<A
	Degree of validity of expense	2.50	3.45	4.22	195.826**	C<B<A
	Degree of previous learning	2.57	3.29	4.01	108.625**	C<B<A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welfare	2.65	3.38	4.27	166.776**	C<B<A
Harmony of local nature & culture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2.39	2.95	3.96	117.018**	C<B<A
	Degree of participation in culture	2.50	3.04	3.96	112.272**	C<B<A
	Degree of follow-up reconsideration	2.45	3.11	4.02	126.321**	C<B<A
	Degree of cultural learning	2.60	3.26	4.14	147.326**	C<B<A
	Degree of consideration toward pollution	2.58	3.34	4.11	118.253**	C<B<A
	Degree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2.31	2.97	4.06	143.974**	C<B<A
	Degree of follow-up learning	2.51	3.18	4.09	148.843**	C<B<A
Conservation of nature	Degree of validity of control	2.99	3.51	4.33	87.538**	C<B<A
	Degree of protection toward nature	2.99	3.59	4.33	108.939**	C<B<A
Consideration of local residents	Degree of consideration of residents' economic benefits	2.94	3.48	4.26	101.101**	C<B<A
	Degree of tolerance toward inconvenience	2.84	3.53	4.31	143.784**	C<B<A
	Degree of learning about natural environment	2.61	3.39	4.31	186.742**	C<B<A
Protection toward species	Degree of protection of species	3.45	3.86	4.45	50.286**	C<B<A
	Degree of resistance to spending	3.10	3.58	4.32	66.510**	C<B<A

\*\* : p<0.01.

**Table 7.** Socio-economical features based on tourists' type

N=991, Unit : Persn(%)

Socio-economy		General tourists	Potential ecotourists	Ecotourists	$\chi^2$
Gender	M	89(50.6)	375(51.4)	42(49.4)	0.13
	F	87(49.4)	355(48.6)	43(50.6)	
Age	21-30	70(39.8)	179(24.5)	17(20.0)	23.01**
	31-40	34(19.3)	211(28.9)	21(24.7)	
	41-50	35(19.9)	186(25.5)	28(32.9)	
	over 50	37(21.0)	154(21.1)	19(22.4)	
Marital status	Single	83(47.2)	249(34.1)	25(29.4)	12.24**
	Married	93(52.8)	481(65.9)	60(70.6)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s	64(36.4)	281(38.5)	31(36.5)	22.34**
	University undergraduates	59(33.5)	139(19.0)	13(15.3)	
	University graduates	53(30.1)	310(42.5)	41(48.2)	
Job	Professional	41(23.3)	183(25.1)	23(27.1)	20.64**
	Students	58(33.0)	143(19.6)	14(16.5)	
	Housewives	32(18.2)	163(22.3)	24(28.2)	
	Services	29(16.5)	179(24.5)	16(18.8)	
	Others	16(9.1)	62(8.5)	8(9.4)	
Income	Under 1 million	21(11.9)	60(8.2)	5(5.9)	11.34*
	1-3 million	106(60.3)	463(63.4)	43(50.6)	
	Over 3 million	49(27.8)	207(28.4)	37(43.5)	
Total		176(100)	730(100)	85(100)	

\* : p<0.05, \*\* : p<0.01

이( $\chi^2=23.01$ ,  $p=.001$ )를 보였다. 생태관광객이 30, 40대가 많다는 결과는 강<sup>3)</sup>, 조와 이<sup>22)</sup>, 이<sup>23)</sup>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다른 두 집단과의 비교에 있어 생태관광객은 상대적으로 40, 50대의 고연령층이 많은 것이므로 이는 Meric과 Hunt<sup>12)</sup>, Fennell<sup>25)</sup>, Williacy와 Eagles<sup>26)</sup>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3년 환경부의 환경의식조사에서 ‘자연경관 훼손행위 규제’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률이 높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고연령층의 관광태도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대중관광객과 잠재생태관광객에 비해 생태관광객의 ‘기혼’ 비율이 70.6%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12.24$ ,  $p=.002$ )를 보였으며, 노<sup>5)</sup>, 이<sup>14)</sup>, 조<sup>21)</sup>, 조와 이<sup>22)</sup>, 이<sup>23)</sup>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연령별 비교에서 30, 40대에 생태관광객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력의 경우, 대중관광객은 ‘고졸이하’가 36.4%로 가장 많고 잠재생태관광객과 생태관광객에 비해 ‘대학 재학 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잠재생태관광객은 ‘대졸 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고졸이하’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태관광객은 ‘대졸 이상’이 전체의 4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22.38$ ,  $p=.001$ )를 보였다. 생태관광객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고학력으로 나타난 것은 강<sup>3)</sup>, 노<sup>5)</sup>, Meric과 Hunt<sup>12)</sup>, 이<sup>14)</sup>, 조<sup>17)</sup>, 강<sup>20)</sup>, 조와 이<sup>22)</sup> 등의 기존 생태관광객에 관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친환경적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은 생태관광객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와 ‘주부’가 많으며, 잠재생태관광객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관광객은 학생의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반면 ‘주부’, ‘서비스업’은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chi^2=20.646$ ,  $p=.008$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과 주부가 많이 나타난 정<sup>4)</sup>, 노<sup>5)</sup>, 이와 조<sup>19)</sup> 등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즉, 주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친환경적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학생은 부정적인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20대의 학생들이 대다수

를 차지하는 대중관광객을 친환경적인 생태관광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월소득에 있어서 세 집단 모두 ‘100~300’의 중소득이 가장 많았으나, 생태관광객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가 많고, 잠재생태관광객은 ‘100~300’의 중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중관광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 집단간 소득수준에 유의한 차이( $\chi^2=11.346$ ,  $p=.023$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ennell과 Smale<sup>27)</sup>, Weiler와 Richins<sup>28)</sup> 등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관광태도가 친환경적인 생태관광객이 고소득과 고학력이라는 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고학력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sup>29)</sup>과 같이, 생태관광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5. 결론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관광부문에 실현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이고, 이는 생태관광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입장에서 생태관광과 생태관광객을 정의하고, 대구시민을 관광객으로 가정하여 관광태도 요인을 분석하고 관광태도에 따른 관광객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관광태도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태관광객의 차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태도에 따른 관광객 유형 조사 결과 991명의 응답자중 17.7%가 대중관광객, 73.7%가 잠재생태관광객, 8.6%가 생태관광객으로 분류되었다. 전체의 82.3%가 잠재생태관광객 또는 생태관광객으로서 친환경적인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태관광객의 증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관광태도 요인분석 결과 친환경적 관광태도는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요인1은 ‘환경윤리성’, 요인2는 ‘현지 자연·문화와 조화성’, 요인3은 ‘자연보존성’, 요인4는 ‘현지 주민 이해성’ 그리고 요인5는 ‘동·식물 애호성’의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고 전체 설명력은 56.9%이었다. 특히 대구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태관광태도는 ‘환경윤리성’과 ‘현지 자연·문화와 조화성’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관광객의 친환경적 관광태도 수준에 따라 ‘생태관광객’, ‘잠재생태관광객’, ‘대중관광객’으로 분류하여 관광태도 요인별 차이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p<0.01$ 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생태관광객은 40대 기혼의 고학력 전문직, 주부, 고소득자가 많고, 잠재생태관광객은 30대 기혼의 고학력 전문직, 서비스업 종사자, 소득은 중간수준이 많으며, 대중관광객은 20대 미혼의 저학력, 저소득의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태관광객이 고학력 고소득이라는 것은 생태관광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또한 기존의 대중관광 사업자에게도 환경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장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20대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중관광객의 경우, 학교와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태적 지식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차후에 친환경적인 생태관광객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개발과 운영, 관리에 있어 관광기업들에게 유용한 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관광객 뿐만 아니라 잠재생태관광객, 대중관광객의 특성 또한 제시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광지 개발 시에 관광지 상황과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관광시장 다양화 및 세분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1) 조진희, 2002, 대구시민의 환경의식 조사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환경과학과, 계명대학교, 대구.
- 2) 김진동, 2005, 대학생의 환경관과 환경행동, 관광학 연구, 28(4), 357-375.
- 3) 강미희, 1999, 생태관광객의 관광 동기 및 태도, 박사학위논문, 산림자원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4) 정철, 2000,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동기·체험·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광학과, 한양대학교, 서울.
- 5) 노용호, 2004, 생태관광자 만족의 영향요인과 행동 반응, 박사학위논문, 경영학과, 경북대학교, 대구.
- 6) 최영국, 임상연, 2005,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경기도.
- 7) Garrod B., Fyall A., 1998, Beyond the rhetoric of sustainable tourism?, *Tourism Management*, 19(3), 199-202.
- 8) 한국관광공사, 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한국관광공사, 서울.
- 9) 이광희, 변재진, 1992,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생태유지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6(1), 133-165.
- 10) 여호근, 2001,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참여의도가 관광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4(3), 307-324.
- 11) 한국관광공사, 1992, 녹색관광시대를 연다, 관광정보.
- 12) Meric H., Hunt J., 1998, Ecotourists' motivation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case of North Carolina travel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4), 57-61.
- 13) Lindberg K., 1991, Policies for maximizing nature tourism's ecological and economic benefits, *International conservation financing project working paper*, World Resources Institute, Washington, DC.
- 14) 이귀옥, 2000, 생태관광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관광 활동참여와 만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관광경영학과, 대구대학교, 경산.
- 15) 송대효, 2000, 관광객의 대환경 관심도에 따른 환경영향 용인도의 차이 연구, *문화관광연구*, 2(1), 133-152.
- 16) Boo E., 1990, Ecotourism: the potential and pitfalls, World Wildlife Fund, Washington, DC.
- 17) 조용기, 1999, 생태관광의 발전과정과 생태관광자 특성에 관한 연구, *건설환경논총*, 2, 127-147.
- 18) 최나리, 2000, 생태관광 동기 및 태도와 자원해설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관광경영학과, 동아대학교, 부산.
- 19) 이귀옥, 조용기, 2000, 생태관광지 우포늪 여름 방문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5(1), 232-251.
- 20) 강인원, 2001, 생태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6(2), 207-230.
- 21) 조혜경, 2002, 생태관광지에 대한 관광동기, 속성, 만족, 재방문 의도간의 영향관계, 석사학위논문, 관광경영학과, 동아대학교, 부산.
- 22) 조용기, 이귀옥, 2002, 생태관광지 우포늪 겨울 방문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설환경논총*, 4, 161-173.
- 23) 이지연, 2003, 생태관광지의 유형별 관광객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텔경영학과, 경희대학교, 서울.

- 24) 서정원, 2005, 생태관광축제 방문객의 동기·태도·관여도가 축제브랜드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관광학과, 경희대학교, 서울.
- 25) Fennell D., 1990, A profile of ecotourists and the benefits derived from their experience: a Costa Rican case study, Waterloo University Press, Ontario.
- 26) Williacy S., Eagles J., 1990, An analysis of the federation of Ontario Naturalists' Canadian nature tours programme, Waterloo University Press, Ontario.
- 27) Fennell D., Smale B., 1992, Ecotourism and natural resource Protection,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7(1), 21-32.
- 28) Weiler B., Richins H., 1995, Extreme, extravagant and elite: a profile of ecotourists on earthwatch expedition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0(1), 29-36.
- 29) 환경부, 2003,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환경부, 서울.